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김창식, 서기관 김지훈
(044-200-2135)

「류」 베트남 국회 수석부의장 접견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6.29(목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방한한 「우엥 쭈 류 (Uong Chu Luu)」 베트남 국회 수석부의장을 접견하고,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이 총리는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게 된 한-베트남 양국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, 「류」 부의장은 한-베트남 양국은 많은 공통점에 기반하여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공고히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.
- 「류」 부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최우선 파트너로서 투자(1위), 개발 협력(2위), 교역(3위)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, 앞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·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고, 이 총리는 우리로서도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,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을 베트남과 나누면서 호혜적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.
- 이와 관련, 양측은 인프라, 보건·의료, 과학·교육, 농업·관개, 하이테크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.

- 「류」 부의장은 베트남은 과거 역사의 경험상 국가 발전에 있어 평화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였으며, 이 총리는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, 지역 및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, 베트남측의 지지와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으며, 금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다.